

자비,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기 June 09

• 누가복음 15:11-32

자비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매우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관습으로도 율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작은아들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그의 아들 됨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롬 8:15). 그러나 맏아들인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죄 의식과 비교 의식에서 오는 우월감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서로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6:3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할 때 자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 인한 피해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며 신뢰했습니다(삼상 24:6). 사울과 그의 행동을 묵상하며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시 18편).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 또한 기억했습니다. 그는 보복의 속 청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풁니다(삼하 9장).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 ①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합니까?
- ②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까, 적과 상황을 묵상합니까?